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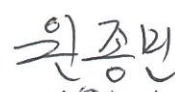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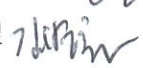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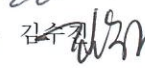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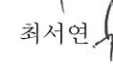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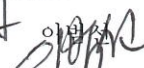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019학년도 제4차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 11. 18(월) 13:30 ~ 15:2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9명) : 채호석,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학 교(2명) : 조기석 기획처장, 최호준 예산담당
 - 불 참(2명) : 김해동, 박연관
 - 회의지원(1명) : 엄종섭(기획팀)
4. 회의 안건
 -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윤호숙 의장이 2019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윤호숙 의장이 최호준 기획팀 예산담당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함
 - 윤호숙 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호준 기획팀 예산담당이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를 바탕으로 예산총칙,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을 진행함

서명 : 채호석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주요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 윤호숙 의장 : 의원들에게 추가성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윤호숙 의장 : 지난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현재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교육용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채를 신청하였음. 해당 건이 승인되면 그 후속 절차로 교육부에 기채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임.
- 윤호숙 의장 : 일의 순서에 관하여 확인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프로세스는 조금 전 설명한 바와 같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교육부에 먼저 기채 신청을 해야함.
- 윤호숙 의장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시중은행에서 받을 경우 금리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비 시중은행 연이율이 약 1% 정도 높음.
- 윤호숙 의장 : 의원분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몇가지를 대표로 질문하겠음. 자료를 보면 제2교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으로 책정해두었는데,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고, 예산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의하면 당장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4억 원을 들여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내부적으로 비용이 감당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건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함.
- 최서연 의원 : 비등록금회계 수입 단기수강료 항목에서 평생교육원 관련 비용이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는데 어떤 내용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평생교육원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약 5천만 원 증가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성화고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 사업 내용이 반영된 것임.
- 최서연 의원 : 보통 평생교육원 수입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평생교육원 예산을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수입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 1억 5천만 원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수치임.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글로벌 회계 아카데미’ 로써 콘텐츠를 임차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정인데 수입은 대학에서 25%, 글로벌 회계 아카데미에서 75%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 해당 비용으로 인건

비도 충당해야 하는 등 사실상 대학에서 얻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늘어나 있는 상황임.

- 최서연 의원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증가했는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해당 사업 자체가 올해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강 학생수는 순수하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변함.
- 유정은 의원 : 리모델링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꼭 어느 회계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건설 관련 비용은 등록금회계에서도 가능함.
- 최서연 의원 : 등록금회계로는 토지 등 매입은 불가능하나 건물 관련 비용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유정은 의원 : 관련 사항은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학교 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 유정은 의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회계에서 해당 비용 사용을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정확히는 의결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음.
- 김병철 의원 : 관리운영비 중 기타운영비 항목이 본예산 대비 약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기타운영비는 총 1억 4천만 원으로 등록금회계가 950만 원 비 등록금회계가 1억 3천만 원임. 등록금회계는 각종 감사 진행 경비로 편성된 비용이며 등록금회계는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임. 비등록금회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KERIS 콘텐츠 개발 사업 대학 대응투자 비용을 기타운영비로 처리했기 때문임.
- 윤호숙 의장 : K-MOOC 사업 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 최호준 예산담당 : K-MOOC 사업 관련 비용도 일부 포함됨.
- 윤이식 의원 : 본예산 편성 시에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못 내준다는 것을 확인하여 책정한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본예산 편성 시에 확인하였으며, 작년까지는 법정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었음.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교비로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작년까지는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올해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음. 학교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통보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유정은 의원 : 교육용기본재산을 취득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음
- 윤호숙 의장 : 의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대학평의원회의

책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윤이식 의원 :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질문함.
- 김수진 의원 : 리모델링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건물을 짓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최호준 예산담당 : 건설 계획이나 사용 용도는 예산담당자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임.
- 윤호숙 의장 : 실무진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획처장님이 배석하시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 최서연 의원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약 48억 5천만 원이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2020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맞으며,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만큼 내년으로 넘어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약 48억 5천만 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 예산을 100% 소진했을 때 액수이며, 일반적으로 사업 예산을 100% 소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 48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작년에는 예산 소진율이 90% 정도였고 높을 때에도 94% 정도였음.
- 김수진 의원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건물을 짓는 데에 쓰이는 것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채호석 의원 : 지난번 대학평의원회 회의 논의 결과와 관계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제시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임. 지난 회의에서 총장님의 답변에도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지난번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으로 의사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의결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모르는 상황임. 이렇게 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듬.
- 채호석 의원 : 중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달리 리모델링 계획이 새롭게 제시되었으며 더욱이 리모델링을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임. 대학평의원회가 몇 차례 걸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와 회의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은 없는것인지 궁금하고 매번 내려오는 안전에 대해서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함. 안전 논의 후에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거나 현재의 방안이 왜 최선인지를 알려주셔야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지난 이사회 결정사항을 처장단을 제외하고는 내부 구성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
- 원종민 의원 : 기획처장님께서 배석하여 학교 당국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이사회 논의 결과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지난번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진된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사장님 면담을 진행했음. 법인 이사회에 전달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는 상황임.
- 윤호숙 의장 : 의원들의 요청대로 기획처장님의 출석을 요청함.

(조기석 기획처장 입장 14:05)

- 윤호숙 의장 : 지난 이사회 결과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 4억이 어떻게 수립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조기석 기획처장 :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와 평의원분들의 의견은 총장님께 충분히 전달하였음.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이사회에도 보고 드렸으며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10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을 취득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음. 그 과정에서 총장님과 교직원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사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교육용기본재산 부지 매입 비용 등이 2019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며, 리모델링 비용은 주택 매입만으로는 해당 공간을 학교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임. 반드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절차를 거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윤호숙 의장 : 교원대표 2명과 직원대표 2명이 총장님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는 원활한 의논 자리가 아니었고 통보의 자리였음. 또한, 이사장님께 직접 건의하라고 하셔서 이사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이 사실임.
- 최서연 의원 : 리모델링 내용은 제2차 회의 안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수진 의원 : 8월 이사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반대를 하기때문에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안건이 10월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이사회에도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이사회에 전달이 되었는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8월 이사회에는 직접 참석하여 구성원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했음. 10월 이사회에는 법인의 요구로 총장님과 기획팀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 회의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건을 특별히 조명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 김수진 의원 : 처음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안건이 나왔을 때부터 취득 사유와 활용 용도가 가장 중요했던 사항이었음.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우선 매입부터 진행한 후에 어떻게든 사용해야 하니 리모델링해서 보여주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우려됨.
- 원종민 의원 : 이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평의원회 및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이 전달되는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8월 이사회에서는 직접 참석하여 우려 및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몇분의 이사님들이 우려 및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 주셨음. 그 결과 8월 이사회에서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였음. 10월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김병철 의원 : 혹여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가 떨어질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이 잘못돼서 건물을 매각하게 된다면 현금화한 돈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는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학교 계정으로 잡힌다고 답변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지금 추세로 보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취득 계획 부동산 외에도 학교에서 확보할 공간들이 더 있는데 기획처에서는 어떤 근거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취득 계획(안)을 수립한 것인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집행부나 법인의 입장에서 학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임. 그렇기에 학교의 집행부나 법인의 의견과 내부의 의견이 달랐으며 이사회 통과도 구성원의 대부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반면에 사이버관을 한국외대와 6:4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음. 만약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최대 40m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고 1층과 2층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사이버관에 학생자치기구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연구실도 부족하고 행정실도 타 대학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취득하면 우리 대학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이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추진되면 각 부서별로 공간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실행할 것으로 보임.

- 김수진 의원 : 사농고 난 후에 공간 활용을 잘 하자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함. 1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취득할 만큼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매입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수진 의원 : 해당 부지에 8층으로 신축할 경우에 모 교수님께서서는 K-Study센터 운영 관련하여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의견이 있으신데 우리 대학은 강의실을 토요일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 K-Study센터가 정말 강의실이 매우 부족한 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함.
- 조기석 기획처장 : K-Study센터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K-Study센터 운영 강의실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용도 중 하나이지 전체를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성을 보고 진행한다고 보기 보다는 외부 학생들이 낸 돈이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됨.
- 최서연 의원 :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중에 설계도면이 있었는데 도면 내용을 근거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할지 8층으로 신축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궁금함.
- 윤호숙 의장 : 말씀드렸듯이 내부 교수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생각함.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사장님 면담을 보직 교수님들 제외하고 진행했지만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된 상황임.
- 원종민 의원 : 굳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서관 혹은 도서관 뒤 1층 건물 등 한국외대 건물과 부지를 이용해서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 등으로 인해 기획처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니 다음부터는 대학평의원회 회의 논의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안건이 진행되었는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해주기를 요청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새로운 안건이 던져진 데 대한 당혹감을 숨길 수 없음.
- 조기석 기획처장 : 대학평의원회 의견은 회의록을 통해 기록으로 남고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함.

- 유정은 의원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 조기석 기획처장 :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는 별개로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사회 이사님들도 내부 구성원들의 부담과 우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유용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에 대학평의원회가 충분히 기능을 했다고 봄.
- 채호석 의원 :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에 기채를 발생시켜야하는 상황에서 빌리는 주체가 학교인지 법인인지,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주체는 학교이며 상환도 학교가 함. 이자 비용은 연 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채호석 의원 : 리모델링을 하면 1층과 2층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것인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은 하기 어렵고, 건물을 지었을 때 1층과 2층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 층을 사이버외대 교사로 활용할 예정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거기에 증축을 할 계획은 아니고, 리모델링 후에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리모델링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안을 선택을 하든지 최소한의 비용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것임.
- 채호석 의원 :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이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리모델링 비용외에도 기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매년 상환해야 하는데, 그 이자를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추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그렇다고 답변함.
- 채호석 의원 : 이자비용 4억은 어느 회계에서 지출되는것인지 질의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결정하기에 따라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음.
- 윤호숙 의장 :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만든 목적은 학교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다양한 학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음. 이미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러 창구를 통해 전달되었음.
- 윤호숙 의장 : 학생 수와 학교 수입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나 여러 경비 등 지출을 낮추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최호준 예산담당 : 수입과 지출은 똑같이 증가하였으며 연구학생경비가 전년대비 약 12억 원 증가하였음. 국가장학금 즉, 교외장학금이 9억 원, 교내장학금이 1억 2천만 원 증가함.

- 윤호숙 의장 :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교사 매입 건이 통과되어 해당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윤이식 의원 :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된다면 대학평의원회의 무용론 또는 외부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가 된 상황임.
- 윤이식 의원 : 내부 의원분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오늘 대학평의원회 회의 종합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함.
- 원종민 의원 :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토지 매입을 위해 발생한 이자 비용이 연간 4억 원씩인데, 5년만 해도 20억 원임. 그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투입 비용 대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 최호준 예산담당 : 이자 비용만 연간 4억 원이 아니라 원리금 합쳐서 10년 기준 연간 5억 원 정도임.
- 최서연 의원 : 부동산 매입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확인해보겠음.
- 윤이식 의원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출 신청하거나 교육부에 매입 신청할 때 용도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는지 질의함.
- 최호준 예산담당 : 용도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음.
- 조기석 기획처장 : 층별 활용 계획까지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로 사용한다는 정도만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서연 의원 : 해당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문함.
- 조기석 기획처장 : 용도 변경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이버관도 처음에는 교사 용도였으나 1층 올리브영과 아티제가 입점해 있는 공간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김수진 의원 : 사이버관 1층 입점 매장들의 문을 도로 쪽으로 내놓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1층과 2층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불법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를 했을 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함.
- 최호준 예산담당 : 교육용기본재산의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학생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학생들일 경우에 가능함. 사이버관의 아티제와 올리브영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며, 신규 건물의 경우에도 1층 및 2층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임. 예전에

는 교육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유휴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윤호숙 의장 : 기획처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채호석 의원 :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총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지난번 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등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외부 평의원에게는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관련 비용이 반영된 상황임. 기획처장님은 하나의 안이라고 답변 주셨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받아들여짐.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안이 도출되었고 현재 방안이 왜 최선인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었다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함.
- 김수진 의원 : 지난 몇 년 간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전중에서 이만큼 논란이 될 만한 주제가 없었기에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함.
- 윤이식 의원 : 대학 발전을 위한 일종의 진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요청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윤호숙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

7. 폐회선언

- 윤호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